

그림비

그림비는 순 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목차

여는글

1. 문정 이슈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트랙명 변경 소식
- 그림비 재개 축하 롤링페이퍼

2. 문헌정보전공 소모임

- 메타버스 지킴이
- 디지털 문화유산 유랑단
- 우리 도서관사 연구
- 문화 빅데이터
- 국채보상운동 컨퍼런스

3. 문헌정보트랙 학생회

- 기획부
- 도서활동부
- 홍보부
- 문화부
- 학생회 소감

4. 2023 문헌정보전공 학술답사

- 답사 장소 미리보기
- 연화정 도서관
-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 국립무형유산원
- 경기전
- 국립전주박물관

마무리

- 그림비 소감

그림비 여는 글

『그림비』 복간을 축하합니다.

정경희(도서관정보문화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학과장)

이번 가을학기 답사를 준비하면서 제 연구실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학생회가 답사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학생회 임원들은 홍보와 관련한 이야기만 나눌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저는 그보다 『그림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제 방에는 오래전 『그림비』부터 최근호까지 『그림비』가 많이 있습니다(문헌정보전공 학생들의 실습실(우촌관 207호)에도 과월호 『그림비』가 많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가 보세요.).

『그림비』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약 10년 전인 1992년 4월부터 문헌정보전공 학생회가 발간해온 소식지입니다. 1년에 2회 혹은 1회씩 발간하면서 2018년까지 인쇄본으로 발간하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웹출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2년간 그림비는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였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대학의 학생회도 코로나의 습격을 피해 가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학생회의 활동과 문화, 전통이 흐릿해지고 선후배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그림비』의 멈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멈추었던 『그림비』를 이번 답사를 취재하여 기사로 쓰면서 다시 살펴보자라는 제 제안에 학생회가 동의하였고 답사 취재는 물론 짧은 기간에 많은 기사를 작성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그림비』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비』의 복간은 단순히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소식지를 다시 출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회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인 『그림비』 출판을 계기로 코로나 기간 멈추었던 학생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비』에 문헌정보 전공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알아야 할 내용, 공유할 가치가 있는 크고 작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실어 학생들이 함께 읽고,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림비』 복간을 준비한 학생회와 편집부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내년의 편집부를 응원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그림비 재개 축하 롤링페이퍼♡

그림비 신문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이 문정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줄 거 같아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학교 생활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문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림비 신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소식을 주고 받으며, 더 많은 기쁨과 활기를 누리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배성은-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림비가 문정인들의 추억이 담긴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박지윤-

그림비의 재개를 축하합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보고 추억할 수 있는 그림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그림비가 재개된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김진영-

문헌정보학과와 역사를 담은 그림비가 다시 편찬되어 기쁩니다~ 학과의 이슈를 빠르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구윤희-

그림비 재개 축하합니다!
문정의 다양한 소식들을 나누고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박나연-

많이 전해들었던 그림비가 재개된다니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림비를 통해 문정의 소식을 만나고, 쌓아온 추억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경남-

그림비 재개를 정말 축하합니다! 다양한 소식, 1년동안 즐겼던 우리의 추억을 접할 수 있는 그림비를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비 화이팅♡

-신하경-

우리 트랙 학생들의 이야기인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그림비를 통해 1년 간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 이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유나-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문헌정보학과의 다양한 소식과
행사의 기록을 통해 일년의
추억이 기록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림비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한서희-

문헌정보학과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림비가 재개되다니
벌써 기대됩니다!!
우리학과의 동기를 비롯한 선후배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김선영-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은채-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1년동안의 활동을 기록하여
공유하는 그림비를 통해
현재의 문정인, 미래의 문정인이
함께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멋진 매개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서린-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역사와도 같은 그림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니 기쁩니다!!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멋진 기록이
계속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최서윤-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문헌정보학과의 기록이 다시
재개되었다니 기쁘네요!
미래의 학생들이 참고하며,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많이 많이
기록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노경빈-

그림비 재개를 축하합니다!
현재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며
나중에 돌아봤을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김효경-

메타버스 지킴이

기사: 이호영 (메타버스 지킴이 소모임장)

어떤 소모임인가요?

메타버스 지킴이는 2022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先輩들이 제작한 게더타운 맵(디정 to Gather)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소모임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문정인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 내용

한성대 문헌정보학과(도정, 디정)의 주요 행사를 포착하여 메타버스 공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술답사, 캡스톤 디자인, 소모임, 교과 수업(한성대 미디어위키, 전자책) 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된 창작물을 수집하여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17명의 조원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소모임 활동 공간, 캡스톤 디자인 전시관, 전자책 전시관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물과 ‘인문콘텐츠와 정보기술’ 수업에서 제작한 전자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유랑단

기사: 박나연 (디지털 문화유산 유랑단 소모임장)

어떤 소모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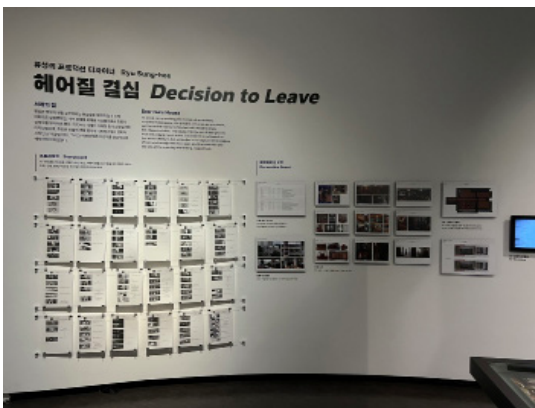
디지털 문화유산 유랑단 소모임은 온라인 전시, 아카이빙 사이트를 탐방하고 무엇을, 왜 어떻게 큐레이팅했는지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전공 관련 지식을 실습하고 직접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예술 기관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어떤 큐레이팅이 진행 되고 있는지 직접 탐방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모임 활동 내용

저희 소모임이 이번 학기에 진행한 활동은 온라인 아카이브 탐방하기입니다. 시간이 맞는 조원들끼리 두 개로 조를 나누어 각각 국회 도서관 시 정보 분석 서비스 아르고스와 서울 기록원 사이트를 탐방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한글 파일에 정리하여 소모임 단체 카톡방에 각자가 정리한 탐색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서관사 연구

기사: 강주희 (우리도서관사 연구 소모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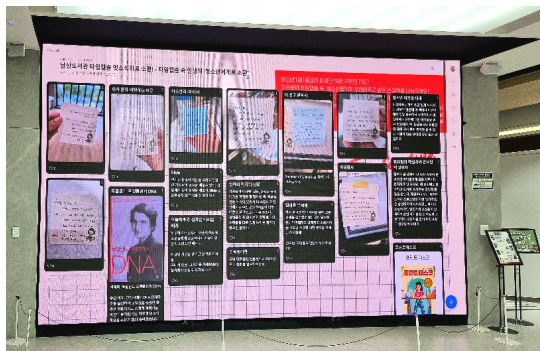
어떤 소모임인가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1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간 도서관은 변모를 거듭하였으나, 과거의 도서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 녹아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였고, 도서관을 통해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과거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사 연구 소모임>은 도서관의 역사를 통해 현재 도서관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며, 사람과 지역을 잇는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활동 내용

<우리 도서관사 연구 소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남산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서와 학생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산도서관 서포터즈 협력 사업은 남산도서관의 옛소식지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전시, 이벤트 등의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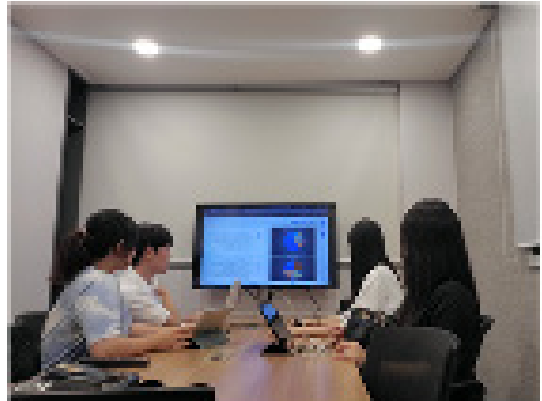
남산도서관 옛소식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8개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9월 16일 ~ 11월 11일, 약 2달간 남산도서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9월 16일 ~ 9월 24일, 2주간 남산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전시와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 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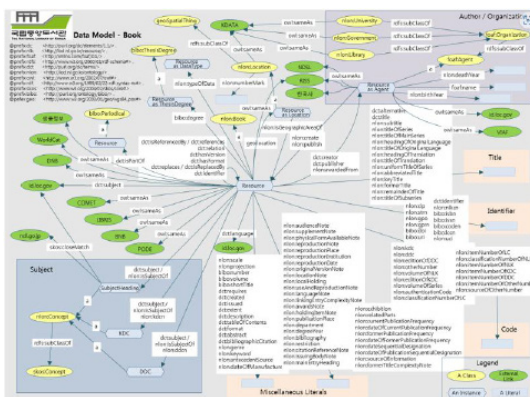
기사: 노경빈 (문화 빅데이터 소모임장)

어떤 소모임인가요?

문화 빅데이터 소모임은 도서관의 Reusable한 디지털 자료를 가치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자원으로 시각화하는 소모임입니다.



소모임 활동 내용



올해 문화 빅데이터 소모임에서는 '문화 작품 배경 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립중앙 도서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독자들의 문학적 호기심과 지리적 탐구심을 자극하고, 작품 속 장소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작가의 작품 속 장소들이 과거에, 또는 현재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작품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컨퍼런스

기사: 이호영

국채보상운동 컨퍼런스

문화빅데이터 소모임에서 2023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국채보상운동 국제컨퍼런스(ANDRM: Preserving the Archives of the Korean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를 참관했습니다.

ANDRM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 행사로, 올해는 ‘한국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록으로 2023’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에 담긴 「나눔과 책임」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기록유산의 숭고한 가치를 공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보존과 접근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CrossAsia’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화 자료 관리 및 접근의 중요성(베를린 주립도서관), 교육 커리큘럼에서의 아카이브 활용 가능성(UCLA), 중국어 필기체 인식 OCR 기술 및 고대 공문서 온톨로지 구축 사례(Academia Sinica의 Linked Open Data Lab) 등 여러 국가의 기록학, 정보학 박사분들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의 박희진 교수님께서도 ‘아카이브 데이터의 위키데이터 연계 및 인물/단체 전거 관리를 위한 모델 설계’를 주제로 발표에 참여하셨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 참여한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FAIR 원칙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NDRM2023 공식 사이트

이외에도 훌륭하고 유익한 발표가 이어졌고, 저희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뜨거운 학술 토론 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관 후기는 ‘한성대 미디어위키’에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헌정보전공 소모임



기획부

어떤 부서인가요?

기획부는 전반적인 학과 행사의 기획을 담당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학과 행사 기획을 맡는 부서만큼 학생회의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활동으로는 기획, 답사, 간식사업이 있으며 코로나 규제 완화로 대면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기획해나갈 부서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기획

학생회 대부분의 활동 및 행사를 기획하고, 학우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사

MT와 LT의 숙소 사전답사 및 예약을 진행하고, 답사를 통해 학우들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식사업

문헌정보전공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중간, 기말고사마다 진행하며 학우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간식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도서활동부

어떤 부서인가요?

도서활동부는 문헌정보전공과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도서활동에서는 지난 활동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웠던 대면 활동을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답사, 전북 고창에서 숙박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몸으로 뛰며 학과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쌓고, 조언을 얻고 싶은 분들께 도서활동부를 추천합니다!”

홍보부

어떤 부서인가요?

홍보부는 학과의 다양한 행사와 소식을 학우님들께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학과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학우님들과 학과의 연결고리이자 소통창구라고 볼 수 있죠!



자세히 알고 싶어요!

플랫폼을 활용하여 트랙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SNS에 공유하여 학우님들과 소통합니다.

“홍보부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 공유가 중요합니다. 홍보물 제작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문헌정보전공 답사

기간 11월 1일(수)~11월 2일(목)

장소 전주 (전주도서관, 국립무형유산원, 경기전, 국립전주박물관)

전주도서관 { 전주시립도서관 중심 모든 시민을 위한 특별한 책 놀이터 전주시립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수목원관 연상시키는 문지 있는 한옥 도서관
팔복예술공장 해맑나무 그림책 도서관
전주시의 특화도서관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림책 특화도서관
* 도서관은 3개 기관 중 신청학생의 선택에 따라 한 곳만 예정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형 박물관

경기전
국립무형유산원 2선대 코어전용 봉안하고 있는 조선시대 전각

국립전주박물관
전주특별자치의 대표 박물관

신청기간 10월 4일(수) ~ 10월 10일(화)

많은 자유시간을 통해 새로운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와 30pt도 받아갈 수 있는 전공 관련 기관 답사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부

어떤 부서인가요?

문화부는 추천 달의 주제와 맞는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선정된 책을 카드뉴스와 북 트레일러와 같은 콘텐츠로 제작하고, 학생회 SNS를 통해 학우님들께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관련 활동으로 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방면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카드뉴스 제작

문화부원이 직접 추천 달의 주제와 맞는 책을 선정하여 해당 책을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카드뉴스는 학생회 SNS에 공유하여 학우님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 퀴즈

카드뉴스와 북 트레일러로 제작된 도서를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 3개 정도를 제작하고, 정답을 맞춘 학우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 회장 활동 소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회장
21 배성은

안녕하세요,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트랙회장 배성은입니다.

트랙회장으로서 1년 동안의 활동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도전과 성취를 겪으며,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서투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멋진 일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랍니다!

2024년, 학생회에서 더욱 멋진 순간들이 가득하길 기대하며,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파이팅해요!

트랙 회장 활동 소감

도서관정보문화트랙 회장
21 이경남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여러 대면 활동 창구가 활짝 열린 해였습니다.
덕분에 꽤나 추웠던 올해 초 새내기 배움터부터
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 이맘때까지 많은 학우님과 만나며
저 또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간 경험할 수 없었던 대면 행사들이 재개되며
서투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신 ‘다운’, ‘가온’ 학생회분들과
문헌정보전공 학우분들 덕분에 달리기 조금은 벅찼던
순간에도 다시 달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모두 바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남은 2023년 파이팅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까지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문정인들의 곁에서 함께 열심히 달려갈
도서관정보문화트랙(지식정보문화트랙) 학생회,
2024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획부 활동 소감

21 최서윤 (기획부 부장)

2023년도 기획부는 시험 때마다 간식사업, MT, 학교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기획부 부원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준 덕분에 이번년도 동안 성공적으로 행사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위해 열심히 기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1 김선영 (기획부 차장)

2023년부터 대면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기획부가 활동 전반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부 부원 전부가 함께 우리 학우분들께 재밌고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보낸 선배님들을 비롯해 동기, 새내기 학우분들까지 모두 만족하신 1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 더욱 뜻깊은 한 해였고 학생회 전체 그리고 우리 학과 학우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기획부도 새로운 부차장과 함께 열심히 꾸려나갈 예정이니 기대바랍니다~!

도서활동부 활동 소감

21 박지윤 (도활부 부장)

안녕하세요 2023 도활부 부장 박지윤입니다.
저희 도활부는 답사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코로나 이후 완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행사들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장이지만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열심히 참여해주셨던
도활부 부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도활부의 많은 활약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 송유나 (도활부 차장)

먼저 2023년 한 해동안 학생회 활동 해주신 모든 부원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함께 활동했던 도활부 부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활동부에서는 100주년이 된 남산도서관과
아르코 미술관 학술답사, 아리랑 어린이 도서관
협력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술답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관람하며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견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 어린이 도서관과는 꾸준히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인연이 끊기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활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도서관과
문화 공간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고 다양한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홍보부 활동 소감

21 이현신 (홍보부 부장)

홍보부에서는 간식사업, 답사포스터, 축제 홍보물 등
학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모두가 성실하게 임해주신
덕분에 더욱 뿌듯하고 의미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홍보부가 학과 소식을 전하는 연결고리로서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 조아인 (홍보부 차장)

2023년도 홍보부는 개강파티, 간식사업, 답사, MT 등
학과 행사를 학우분들께 알리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부원들과 소통하고 홍보물을 함께 제작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열심히 참여해준 부원들 덕분에 재밌고 뿌듯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홍보부는 새로운 부차장과 함께
학과 행사를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문화부 활동 소감

22 홍이준 (문화부 부장)

안녕하세요! 문화부 부장 홍이준입니다.

올해 문화부에서 부원들과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북퀴즈를 제작하면서 다양한 도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좋았습니다.

또한, 문화부에서 2023년 다시 그림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화부가 학과의 소식지를 다시 한 번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 깊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바쁘게 달려와준 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문화부도 이러한 기운을 이어서 늘 파이팅하고 활기찬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신하경 (문화부 차장)

문화부에서는 매년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부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더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문화부는 그림비를 하게 되면서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부분을 착실하게 수행해 주신 부원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문화부 차장으로 부장님과 재밌고, 행복하게 문화부를 꾸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내년 문화부도 새로운 부차장이 또 다른 인연들과 함께 나아가는 부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부와 그림비에 많은 관심 주시길 바랍니다!

답사 장소 미리보기

문화부



문정 답사코스



01.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2020년에 개관한 전주의 그림책 도서관

기획 전시, 그림책 전시, 그림과 연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희귀 그림책 도서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 출처: 이팝나무 도서관
https://www.gyeongju.go.kr/jeonju/021



02. 연화정 도서관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한옥도서관

전주 덕수공원 내지호에 위치한 한옥도서관으로 도서관 공간의 연화당과 산화농간 역일의 연화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 전주에 대한 다양한 도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다.

전주 덕수공원 내지호에 위치한 한옥도서관으로 도서관 공간의 연화당과 산화농간 역일의 연화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 전주에 대한 다양한 도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다.



03.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열람실과 벽이 없는 개방형 상의 도서관

세종문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힘을 뜻하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2019년에 개관하여 지하1~지하4층의 규모를 가진 도서관이다. 벽과 문이 없이 열린 공간으로 제작되어 자유롭게 오가며 책을 고르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 출처: 전주시립도서관
http://www.jeju.go.kr/jeonju/021



04. 국립무형유산원

세계최초의 무형유산 복원 행정기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무형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국립무형유산원



05.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이전을 보시는 전각

<조선태조이전>을 모시기 위해 1410년에 건축한 곳으로,
경기 전 내부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와
태조 이성계의 어진 복원을 보존하고 있는 '어진박물관'을 통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경기전



06. 국립전주박물관

1990년에 개관한 전라북도의 대표 박물관

전북에서 발굴된 고고유물, 역사 자료 등
전라북도 관련 중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와 정원 전시실, 산설전시실 등에서 전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국립전주박물관

자유관람 장소

1

동문한책도서관

동문거리리에 있는 도서관으로, 사람들이 기증한
헌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도서 공간이다.

2

한옥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으로, 전통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다.

3

한옥 도서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도서관으로, '꿈방앗간',
'대나무 숲', '마음곳간'이라는 세 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도서 공간이다.

연화정 도서관

기사: 유승균, 김다인

편집: 홍이준



연화정 도서관

전주에 위치한 연화정 도서관은 아름다운 한옥이 즐비한 전주답게 한옥으로 되어있다. 덕진공원 안에 있는 ‘ㄱ’자 형태의 한옥 도서관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이다. 덕진공원에는 호수 위를 걸을 수 있는 데크 길이 있고 수많은 연꽃을 볼 수 있다. 연화정 도서관은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 호수를 도서관 안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운치 있는 장소이다. 공원과 도서관을 잇는 다리를 건너면 도서관의 건물과 누각이 모습을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화정 도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화정 도서관의 모습

연화정 도서관은 ‘연화당’과 ‘연화루’라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연화당은 비치되어 있는 책을 고르고 자리에 앉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한옥 카페처럼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있고 창밖으로는 덕진호수의 연꽃 풍경을 볼 수 있어 평범했던 독서가 마치 낭만적인 순간으로 느껴지는 곳이었다. 연화루는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넓은 마루와 사방이 탁 트인 창호가 있어 풍경을 감상하거나 누워서 책을 보며 힐링할 수 있게끔 구성된 도서관이었다.



연화정 도서관의 구성

연화정 도서관에는 2,300여 권의 책이 구비되어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 많은 양의 책은 아니지만, 한국적이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도서들이 많이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이용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도서관이다.

연화정 도서관의 구성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가장 큰 책꽂이가 보인다. 그곳에는 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방색(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곳은 다른 도서관처럼 한국 십진 분류표를 사용해 분류하지 않고 자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점’, ‘선’, ‘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다. ‘점’은 전주를 소개하는 도서, ‘선’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루는 도서, ‘면’은 한국문화, 한류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문화에 대한 자료, ‘그리고’는 한국적 소재의 그림책 ‘여백’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 사진, 예술책 등을 다루는 주제이다.



연화정 도서관의 운영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 보이는 운영 안내 표지판은 연화정 도서관만의 감성과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개장 시간은 ‘책 꽃 필 무렵 10시’, 폐장 시간은 ‘책 꽃 질 무렵 19시’로 표시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이곳의 특성상 대출은 이뤄지지 않아 라벨 작업이 되어있지 않다. 도서 분실 우려가 있지만, 도서관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방문객들의 마음이 모여 그동안 권도 분실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화정 도서관의 운영

이곳에서는 전통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 바로 알기’, ‘전통 공방 체험’ 등을 진행해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도서관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참여를 도모했다. 연꽃이 예쁘게 피는 7~8월에는 야간 개장을 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방문하면 더 아름다운 도서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덕진공원 입구에는 포토존도 존재하는데, 연화정 도서관 모든곳이 다 아름다운 만큼 어디에서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연화정 도서관, 어땠나요?

인터뷰: 23 강한솔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23학번 강한솔입니다!

Q2. 학술 답사에 처음 참여한 소감이 어땠나요?

이동한 장소가 많아서 일정이 촘촘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유시간도 많았고 좋았습니다. 조별로 미션도 재밌게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Q3. 연화정 도서관에 갔는데 기억나는 장소나 흥미로운 점이 있었나요?

우선 연화정 도서관이 무척 예뻐했습니다. 연꽃이 다 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화정 도서관에서는 특이하게 책을 다른 도서관처럼 분류하지 않았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Q4. 연화정 도서관을 가지 못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전주에 간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도서관이 매우 예뻐서 가서 구경하여도 후회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Q5. 도서관에서의 답사를 통해 자료와 학과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이 변했나요?

답사를 다녀와보니 제가 학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해당 분야의 일이 훨씬 체계적이구나 느꼈습니다. 큐레이팅 방법 등을 강의를 통해 배워보면서 문헌정보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간 것 같아 답사 전후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Q6. 이것이 나중에 선택할 학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나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였고 이후에 있을 트랙 선택에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바쁜 와중에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기사: 김진영

편집: 홍이준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은 2021년 개관한 전주시의 특화 도서관 중 한 곳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림책 특화 도서관이다. 개관을 기념한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그림책 전시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연계한 예술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의 관람 시간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를 제외한 10시부터 17시이다.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은 2021년 개관 이후 전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진행된 기획 전시는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 <세계가 사랑한 우리 그림책>, <새, 나무에 앉다>가 있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팝업북, 그림책 등은 계속해서 도서관 내에 전시되고 있었다.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의 전시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는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200여 년의 팝업북의 역사를 돌아보고 책 속 이야기들을 3차원의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오롯이 종이의 움직임으로 만들어 낸 팝업의 한 장면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해당 전시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톰, 디즈니 등의 다양한 팝업북을 볼 수 있다.



<세계가 사랑한 우리 그림책>은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전시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주 문화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공동 기획으로 이루어졌다.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국내 그림책과 전북지역의 그림책 작가들을 소개한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원서와 수출된 번역본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각 나라의 소소한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며, 알사탕, 백두산 이야기, 호랑이와 꽃감 등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 75종 154권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새 나무에 앉다>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의 세 번째 기획전시이다. 자연의 새와 나무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이승원 작가, 김선남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을 느껴볼 수 있다. 자연 속 새와 나무를 관찰하고 즐겨 그리며 그들에 대한 애정과 자연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다고 두 작가는 이야기했다. 은행나무, 영등할망 제주에 오다 등 두 작가의 작품을 보며 우리는 자연 속 새, 나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연과 사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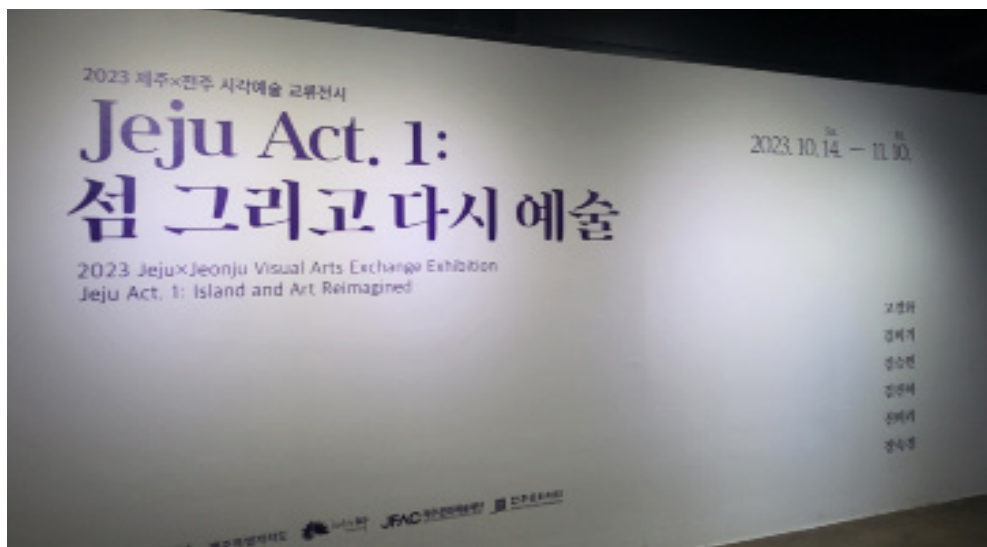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이 위치한 팔복예술공장은 197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폐공장으로 25년간 방치되다가 문화와 예술이 만나 예술가와 시민, 기업과 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플랫폼 팔복예술공장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팔복예술공장은 무한 상상의 예술 놀이터로 변신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놀이를 통한 예술 경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팔복예술공장은 창작스튜디오, 사무실, 전시장, 세미나실, 다목적실, 옥상 놀이터가 존재하는 A동,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이팝나무 홀, 이팝나무광장이 존재하는 B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A동

11월 1일,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방문했던 시기엔 ‘Jeju Act. 1: 섬 그리고 다시 예술’이라는 제목의 전주와 제주 간의 시각예술 교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당 전시는 제주의 어제, 오늘, 내일을 바라보는 6명의 작가의 시선이 담겨있다. 전시는 제주의 4.3, 제주의 자연,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재앙과 공포, 일상 속 무기력과 회복, 예술의 본질과 영향, 일상과 미술의 관계 등 작가별 다양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



B동

B동 1층엔 유아 예술 놀이터, 2층엔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존재한다. 예술 놀이터는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교감하며 활동하는 예술 놀이 공간이다. 주어진 재료를 갖고 아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팝나무 도서관, 어땠나요?

인터뷰: 22 송유나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정보문화트랙 22학번 송유나입니다!

Q2. 이전에 학술답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A. 네 있습니다.

Q3. 참여해 본 적이 있다면 저번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학술답사의 소감은 어땠나요?

A. 저번 학술답사는 다 같이 설명 듣고 단체 활동이 중점이었다면 이번 학술답사에서는 저번보다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고 자유 시간도 많아 내가 원하는 장소를 오래 관람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로워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별 미션이 있어 조원들은 물론 다른 조 친구들과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숙소 바로 옆이 한옥마을이라 조용하고 전경이 무척 아름다워 좋았습니다.

Q4. 3가지 도서관 중 어디를 갔나요?

A.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에 갔습니다.

Q5. 이팝나무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나 내용은 어떤 건가요?

A. 일단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위치한 장소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곳에 도서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도서관이 있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진행 중인 전시가 알차서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시실에 있던 팝업북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Q6. 해당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옛 공장을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발상이 신기했습니다. 지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건물 자체를 활용해 현재 도서관에서 예전 공장의 형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이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도서관과 달라 새로웠습니다.

전시실에 있던 팝업북은 아주 오래된 팝업북이었는데 직접 보고 팝업북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이론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에 대한 이론에 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설명을 듣게 되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Q7. 이팝나무를 가지 못한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A.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장지대를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라 외관이 특별하여 도서관이 전공이 아닌 학우들에게도 더 흥미로운 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또한, 문헌 정보를 진로로 생각하는 학우들에게는 이론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그림책에 중점이 되어 있어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을 바라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Q8. 미션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A. 조별 미션 이외에도 다른 조와 함께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 우리 조원들은 물론 다른 조 친구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되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이팝나무 외의 도서관도 궁금했는데 “각 도서관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 미션을 통해 조금이나마 각 도서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Q9. 조장으로써 답사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조장으로서의 소감은?

A. 앞서 함께 명찰을 만들고 조별 미션을 하며 조원들과 어색함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녁 시간에 맛있게 밥도 먹고 자유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며 공통점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번 답사는 조장으로 참여해 10명이라는 인원을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걱정했지만, 막상 답사에 참여하니 조원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조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Q10. 도서관 정보문화 트랙이 전공인 만큼 도서관 답사를 통해 전공과 관련하여 든 생각이나 새로운 점이 있었나요?

A. 도서관 답사를 가기 전에는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책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책만 소장한다면 이용자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도서관은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공간인데 그림책으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팝나무 도서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았고 시기마다 기획 전시, 팝업북 등이 있어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팝나무 도서관 답사를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Q11. 이번 답사를 통해 진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나요?

A. 저는 도서관 사서직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 두 분야 중 한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서관 답사 및 국립무형유산원, 경기전에서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아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관, 어린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관심있는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기사: 강하영, 박소정

편집: 홍이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힘을 가진 꽃심은 2019년 12월 20일 개관한 전주시를 대표하는 12번째 시립도서관이다. 지하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된 건물로 어린이자료실, 카페, 종합자료실, 우주로 1216 등 다양한 편의 시설로 갖춰져 있다. 전북지역 최초로 밀폐된 학습실이 없는 도서관으로 벽과 문이 없어 자유롭게 오가며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

야호 책놀이터

아이들은 책과 함께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공간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도서, 잡지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되어 있다. 도서 외에 보드게임, 퍼즐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그림책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룸이 있다.



시민의 서랑

계단에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1층과 2층이 이어진 계단으로 주로 시민들이 기증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친구 혹은 지인들과 도란도란이야기 꽃도 피울 수 있다.

종합자료실

도서, 디지털자료, 정기간행물, 신문 등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밀폐 되어있지 않고 뽕 뚫린 공간으로 답답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우주로 1216

‘우’리가 ‘주’인이 되는 아지트존이다.
최초의 12세부터 1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윈세대 공간으로, 우주 컨셉에 걸맞게 트윈세대는 ‘우주인’, 어른들은 ‘지구인’이라고 불린다.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을 알아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우주로 1216의 책은 공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할 수 없다.

톡톡존

트윈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공간)이다.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다.



쿵쿵존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쿵쿵무대와 관심 있는 콘텐츠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쿵쿵계단이 배치되어 있다.



곰곰존

나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곰넛, 도란도란 모임을 위한 공간인 곰방과 곰실에서 고즈넉한 창가 햇살을 맞으며 쉴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요리할 수 있는 남남존도 마련되어 있다.

속속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게 여러 악기들이 배치되어 있고,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볼 수 있는 속튜디오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0시에 3D펜으로 굿즈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어땠나요?

인터뷰: 22 김현희

Q1.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정보인문학트랙 22학번 김현희입니다!

Q2. 1일차에 3곳의 도서관 중 어디를 방문했나요?

전주꽃심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Q3. 해당 도서관에서 인상 깊었던 장소나 사건이 있나요?

우주인을 위한 공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주인이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뜻합니다. 해당 공간은 이러한 우주인들이 자유롭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구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Q4. 해당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애매한 나이일 때 놀거리가 많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기에는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부끄럽고, pc방은 어른들의 눈치가 보여 쉽게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릴 적 기억으로 인해 해당 공간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우주인을 위한 공간은 어릴 적 저와 비슷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점도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Q5. 3곳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립전주박물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을 통해 전주에 많은 역사·문화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방문했던 전시실의 큐레이터분께서 전주의 역사를 설명해주셨는데, 그 설명이 매우 실감 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Q6. 1일차에 진행했던 미션 활동은 어땠나요?

조별로 한 글자씩 뽑은 뒤 해당 글자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글자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무의식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사진을 찍는 미션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션을 수행하면서 조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다양한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7. 대부분의 활동을 조별로 조원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불안했지만, 조장이 조원들을 잘 인솔하고 말도 많이 걸면서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뽕튀기가 다른 조에 의해 깨졌던 상황이 웃겨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Q8. 이번 답사를 통해 트랙에 대해 생각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평소에 단체 활동을 안 좋아해서 MT나 학생회 활동에 참여를 별로 안 했고, 이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우리 트랙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면서 트랙에 소속감을 느끼고, 나아가 전공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9. 이번 답사를 통해 전공과 관련하여 새롭게 느낀 점이 있나요?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물 아카이브실에서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홍보 포스터, 건물의 기념패처럼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박물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록관리의 이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답사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꽃심도서관이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았는데, 조용하고 공부만 하던 도서관의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서가 된다면 이렇게 소통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기사: 구윤희

편집: 홍이준



국립무형유산원을 가다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의 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러한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실, 공연장, 아카이브 자료실 등 다양한 장소와 함께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에 도착했을 때 매우 큰 부지에 있는 건물들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국립무형유산원의 로고가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건축물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중심에는 분수대와 조형물들이 있어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기관의 특색이 돋보였다.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서 기관의 소개 영상과 함께 설립목적, 목표 등의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다. 그리고 책마루, 아카이브 보존실, 디지털 아카이빙실, 상설전시실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문화재 모양이 새겨진 그룹톡을 만들며 직접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책마루

책마루는 무형유산 관련 학술·조사·연구·기록정보와 다양한 공연·전시 영상자료를 모아놓은 전문도서관으로 기록관과 박물관의 역할도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러한 특징에 맞게 책마루의 장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크게 단행본, 기증도서, 비도서, 수집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단행본은 일반내용을 담은 도서로 별치기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증도서는 이두현 선생 기증 도서와 중촌문고에서 기증받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 비도서는 CD와 DVD로 나눌 수 있다. 수집자료는 책마루에서 수집한 자료와 제본 자료를 의미한다.



이처럼 책마루는 일반내용을 담은 도서 외에도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서가의 배열이 색다르다. 1번부터 10번 서가는 십진분류법에 따라 000 총류~900 역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11번부터 19번 서가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국립무형유산원 발간도서, 기증도서, 지역발간도서 등의 자료와 아동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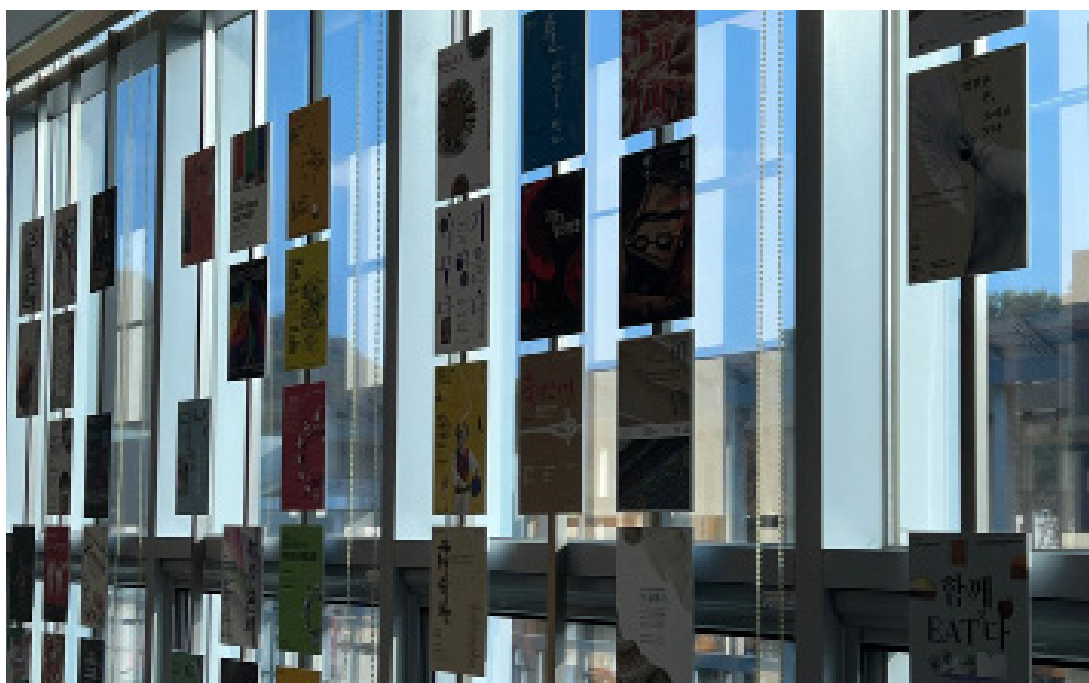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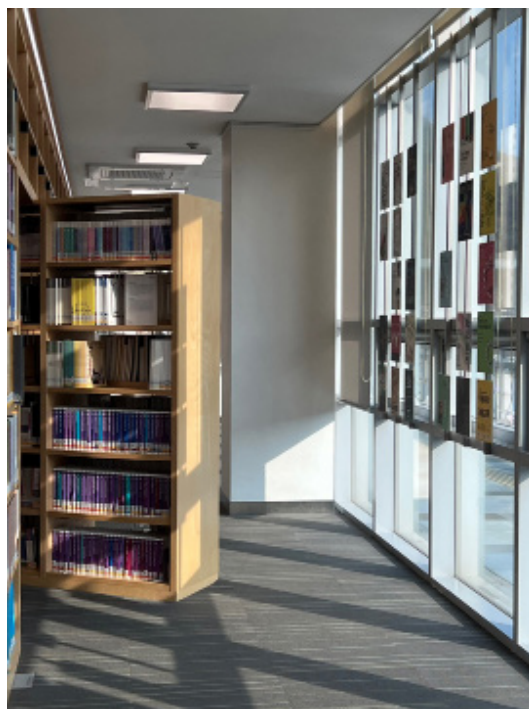
책마루

공간과 관련해서는 책마루의 중심에 있는 탁자와 벽면에 붙어 있는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운데에 있는 탁자는 ‘소리내지 않고 흐르다’라는 작품으로 물줄기처럼 흐르는 나무의 모양과 중간에 박혀있는 돌들이 특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유산의 창의적 계승을 위해 ‘창의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작품은 ‘창의공방’에서 ‘전통’과 ‘새로움’을 주제로 재해석한 것이다.



책마루

다음으로 벽면에는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해왔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의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여러 무형유산을 주제로 전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책마루는 독서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역주민들과 무형유산을 향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카이브 보존실

아카이브 보존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보존 및 관리하는 공간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의 유품인 바지, 저고리, 악기, 가발, 인간문화재가 담긴 포스터,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보존하고 관리한다. 포스터의 경우, 파일은 물론 실제 사용되었던 실물 포스터도 함께 보존하며 비디오의 경우는 예전에는 필름 형식으로 보존하였지만, 최근에는 카세트형식으로 보존하고 있었다. 온도에 민감한 자료들을 위해 아카이브 보존실은 항상 20~22도의 온도로 유지한다.



개별 파일들은 업무명과 기록물 번호를 작성하여 구분한다. 서가는 업무 활동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보존 기간도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들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보존실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며 학술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잠자고 있는 유물들에 숨결을 불어 넣어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공간이었다.

디지털 아카이빙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으로 무형유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인 전통 공연, 예술, 전통 기술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생산 및 수집하여 보존, 관리한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공연, 전시 등 생산자료와 인간문화재, 연구자 등에게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들을 오늘날의 영상 형식으로 40분 분량의 영상을 변환한다면 600GB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 비디오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비대해지는 용량을 줄이고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화질 변환하는 일을 디지털 아카이빙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설전시실 1

열린마루의 1층과 2층에는 상설전시실이 있다. 그중 1층에 있는 전시실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한 무형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일상 속 흥과 풍류는 계속 전승되어 오늘날의 문화와 예술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는 전통 공연, 의례와 의식, 전통 놀이와 무예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전통 공연에는 노래와 대화 등으로 표현되는 전통 음악과 춤, 인형극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곡 초보 시조, 처용무전승 관련 서류, 승무 의상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예술로 승화한 민족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해당 파트는 미디어 월을 사용하여 관람자가 지정된 자리에 서 있으면 소리꾼이 영상으로 나와 판소리를 들려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원하는 판소리를 선택하여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례와 의식은 풍요로운 농사 또는 천재지변으로부터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제례나 굿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뱃놀이나 해녀의 물옷, 굿 의상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해당 파트에서도 영상 장치 콘텐츠가 있는데, 관람자가 지정된 위치에 서 있으면 영상이 재생되어 물로 나가는 남성들을 직접 배웅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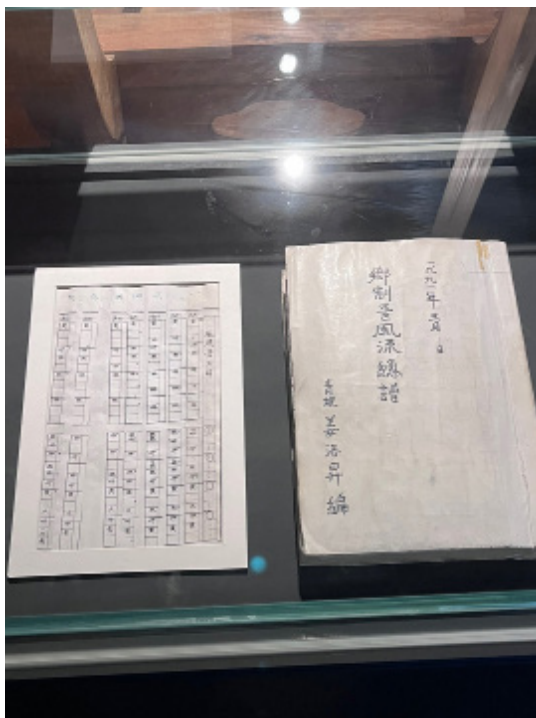
전통 놀이와 무예는 세시 명절이나 절기를 맞아 행하는 놀이나 무예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월대보름, 단옷날에 이루어지는 놀이와 관련된 줄다리기 줄, 상모, 탈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실 중간에 다양한 탈들을 탐처럼 쌓아 올려서 영상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상설전시실 2

2층에 있는 상설전시실은 ‘일상의 멋과 지혜’를 주제로 한 무형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전통 공예 기술과 생활관습을 엿볼 수 있으며, 자연의 재료가 일상의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예의 결과물인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장을 만드는 소목장, 유기그릇 세트를 만드는 유기장, 활을 만드는 궁시장, 상을 만드는 소반장, 신과 보석함을 만드는 화각장 등 각 분야의 장인들은 자연 재료만이 지닌 특징을 찾아 대대로 이어온 방법과 솜씨로 일상의 물건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연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랑방, 안방 등 전통의 생활공간 곳곳은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기와에 새겨진 문양 또한 장인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 이처럼 공예 기술은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보태주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위해 해당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공예품을 활용하여 직접 방 안의 공간을 꾸며볼 수 있는 콘텐츠와 공예품에 쓰인 자연 재료를 맞춰 보는 퀴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단청 체험활동

무형유산인 단청을 체험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단청이란 건축물에 여러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미술로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물에 채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나무판 위에 그려져 있는 전통 모양을 채색하여 그림토끼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전통 모양 유형은 주화, 연봉, 여의두문 세 가지가 있었고, 하나를 선택하여 채색했다.



경기전

기사: 구윤희

편집: 홍이준



경기전을 가다

조선왕조실록과 어진은 조선 궁중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이다. 경기전은 이러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정전과 전주사고가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경기전의 외관은 기와와 전통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궁과 비슷한 크기의 규모에 놀랐다. 입구에서 경기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은 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정전과 전주사고를 직접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정전

정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건물이다. 어진의 진본은 어진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된 것은 모사본이다. 본래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26점이 제작되었지만, 그중 딱 하나만 보존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 수장고에 보관된 것이다. 해당 어진은 이성계가 60대일 때 그려진 것으로, 실제 이성계는 40대에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어진을 그릴 때는 있는 그대로 그리되, 위엄있게 그려야 했다. 만약 위엄이 없거나 본모습과 다르면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어진 자체뿐만 아니라 어진을 봉안하고 있는 정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 위쪽에는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나무를 조각한 것이다. 거북이의 의미는 불로부터 어진을 보존하는 것에 있다. 물을 상징하는 거북이를 새겨 어진을 보호하려 했던 선조들의 생각이다. 이 외에도 화재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담아주는 그릇도 있었다.

전주사고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뒤, 화재나 외적으로부터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4개의 사고를 지어 각각의 사고에서 한 부씩 관리하였다. 그중 하나가 경기전의 동쪽에 있는 전주사고이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를 제외한 세 곳의 사고가 모두 불타면서 실록 또한 소실되었는데, 전주의 실록들만 옮겨져서 조선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주사고는 조선 초기의 역사를 지킨 의미있는 장소이다. 지금은 전주사고에서 실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이곳에서는 전주사고의 역사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기자: 신하경

편집: 홍이준



국립전주박물관을 가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라북도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된 박물관이다.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전시, 교육,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전통문화와 전라북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1990년을 시작으로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발전한 기술을 통하여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보여준다.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야외가 넓은 박물관이라 놀랄 수밖에 없는 크기였다. 박물관 자체는 현대적인 한옥의 모습으로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이어서 국립전주박물관이 전시를 진행하며 추구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했다. 야외에도 다양한 전시들이 존재하였으나 박물관의 대표 콘텐츠인 디지털을 이용한 전시를 중점으로 전시관 3개를 구경하였다.

역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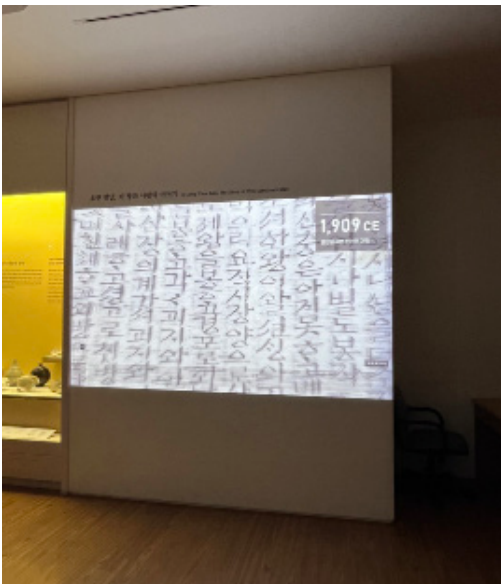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의 상설전시관 1층에 있는 역사실은 전북 지역의 구석기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친 통시적인 문화 흐름을 전시하고 있다. ‘전북 선사 문화의 시작’과 ‘마한, 그 시작’, ‘마한에서 백제로’, ‘고대국가의 완충지 전북’,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 ‘전라 천년의 시작 고려’, ‘성리학의 나라, 조선’ 총 일곱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품은 최근에 발굴된 유물을 망라하고 있다. 초기 청자 생산지인 진안도통리 가마 출토품과 전북 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뛰어난 금속기 제작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완주 신평 유적의 잔무늬 거울과 동검동과 거꾸집, 삼국시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북 지방 세력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창 봉덕리 유적의 금동장식 신발 등의 유물과 보물이 전시되어 있다.

역사실

국립전주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인 유물을 디지털로 변환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유물이 역사실 금동장식신발이다. 역사실 한 편에는 금동장식신발을 3D로 구현해 놓은 터치스크린 화면이 마련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신발의 구석 구석을 다양한 각도로 돌려 볼 수 있으며 실물로는 볼 수 없는 신발 바닥의 스파이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000여 점의 유물들을 역사의 흐름에 맞게 전시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는 전주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항상 유리창에 가려진 유물만을 감상해 오다가 3D로 구현된 전시를 통해 유물을 실제에서 보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선비서예실

역사실 옆에 위치한 선비서예실은 조선의 지도자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인 선비의 성장, 역할, 선비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서예는 옛 선비들의 마음과 삶을 담고 있는 글씨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조선 선비들은 글씨를 쓸 때, 옛 명필의 필적을 모아 만든 법첩을 곁에 두고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부하였다. 개성을 중시하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선비의 서예는 모범을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창작하는 학습과 창조의 과정이자 천년이 넘는 시간을 초월한 ‘법고창신’의 예술이다.



‘조선, 선비를 기르다’, ‘선비, 조선을 이끌다’,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 총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는 중국 동진의 왕희지를 비롯한 서예가들의 법첩과 김구, 한호, 이광사, 정조 등 조선시대 선비와 왕의 글씨로 조선 서예의 흐름을 보여준다. 전시품 중 특히 석정 이정직의 예술은 고전을 공부하며 예술세계를 이루어갔던 선비 서화가의 본보기로 선비들이 붓을 들며 가졌던 마음가짐과 정성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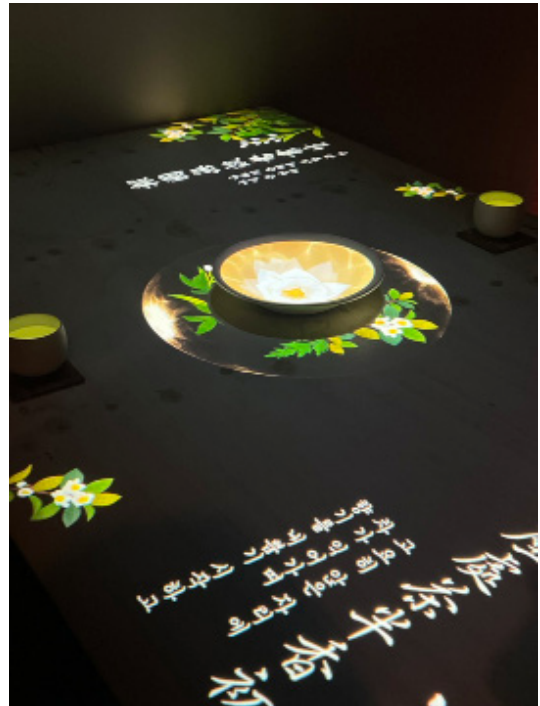
선비서예실

그림과 연결된 미디어아트도 전시되어 있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선비들의 공간과 취향을 주제로 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찾아 명산으로 유람을 떠났던 선비의 길을 따라가 보는 내용이 담겨있다. 삼면 입체 영상으로, 서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배경으로 조선 선비의 서예와 사군자를 그림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관람하며 삼면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선비가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선비의 삶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선비문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터치스크린이 존재하여 주요 선비들과 선비의 삶, 선비의 예술세계, 선비의 문학세계를 알아볼 수 있다.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주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있었다. 전시에서 볼 수 없는 선비들의 삶과 정신에 대해 이해하고, 전시를 다시 즐기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

선비서예실

선비서예실에서도 전시품이 디지털로 변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중간 중간 전시품의 설명에 대한 영상이 틀어져 있는 모니터가 있어 서예에 담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찻잔과 그릇이 올려져 있는 구조물에 찻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은 영상이 비치며 옆에선 서예가 글로 적혀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공간이 있었다.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실제로 나지는 않지만, 묵향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실감영상

마지막으로 상설전시관 2층에 올라가 감상하였던 실감 영상이다. 실감 영상이란, 국립전주박물관의 대표 콘텐츠이자 가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다녀온 느낌을 주는 실감 콘텐츠이다. 앞서 나온 찻잔에 물이 차오르는 영상인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도 실감 영상중 하나이지만 2층에서 관람한 실감 영상에는 <전주도원도>, <우금암도와 변산기행(선비와 함께 떠나는 기행)> 2가지가 있었다.





실감영상

<전주도원도>는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지도’(보물)을 재해석한 18세기 어느 봄날의 전주를 보여준다. 전주를 둘러싼 산수와 네모 형태의 전주부성,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를 관할한 ‘전라감영’,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나오며 과거에서 현재의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변화하는 흐름을 영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노래와 함께 어우러지며 동작이 실감 나 같이 과거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금암도와 변산기행 (선비와 함께 떠나는 기행)>은 LA카운티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세황의 ‘부안유람도권’을 모티브로 한 영상이다. 변산을 중심으로 내변상에 속하는 우금암과 직소폭포 그리고 외변산에 속하는 채석강의 일몰까지 볼 수 있으며 18세기 화가의 시선에서 현재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다. 3D로 구현되어 있었음에도 굉장히 실감 나는 텍스처를 활용하여 실제 공간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2023 학술답사, 같이 공유해요!



전주 답사 조별 미션지

#엑스라그릭 탠그 이벤트 *조원 중 한 명만 참여	궁자 서진 찍어오기 (궁자본 현대 환기로 설계) *조별로 결과물 하나씩	물건을 지켜라 (다른 조에게 가둠)
특별한 인물과 함께 촬영 !	문정 후에 서진 찍기 I (보스니와 함께) *서진에 조 전체 동장	유저 친화제로 (+>0') <0> 조원끼리 작품 혹은 엑스라그릭 역할처 공유 *조 전체 참여
각 도서관을 잘 표현하는 서진 찍기 *서진에 조 전체 동장 (피도 일체)	전주를 잘 나타낸 서진 찍기 *전체 10명-조 전체	문정 후에 서진 찍기 II (도제장과 함께) *서진에 조 전체 동장



그림비 제작 소감

22 홍이준

안녕하세요, 문화부 부장 홍이준입니다. 처음에는 ‘그림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과 소식을 담은 책자가 오랜 기간 제작되어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그림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시작한 그림비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사 작성, 사진 촬영, 인터뷰에 기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부원들에게 큰 감사와 수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그림비가 더 다양한 내용과 소식이 담기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2 신하경

다시 새롭게 재개되는 그림비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른 부원들과 함께 만들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만들수록 ‘이런 사진을 더 찍어봐야겠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 같다’ 등 열정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게 되니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림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가장 열심히 일 한 문화부 부원들과 부장님께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구윤희

문헌정보학과의 역사를 담은 그림비가 새롭게 재개되어서 기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림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학술답사 등의 학과 활동에서 열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내용을 정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림비를 통해 트랙의 일 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열정을 갖고 편찬 작업을 진행한 부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림비 활동을 포함하여 일 년간 문화부를 잘 이끌어준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림비 편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학술답사, 학과 소모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으니 그림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일 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재개된 그림비가 앞으로도 꾸준히 편찬되기를 바랍니다!

22 김진영

3년 만에 재개되는 그림비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가 문헌정보학과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에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과 추억이 있었구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부 부원들과 함께 열심히 작성한 그림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비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문화부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림비 편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 박소정

기나긴 역사를 가진 그림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새내기이기도 하고 많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그림비에
참여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선배분들께서 하시는 모습과
내용을 보니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했는지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내년에 더 많은 행사들을 즐겁게 참여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비를 편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부차장님 그리고 부원분들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편찬한 그림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비 편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정경희 교수님, 박진호 교수님, 박희진 교수님

기사: 강하영 김다인 유승균 (답사 기사)
강주희, 노경빈, 박나연, 이호영 (소모임 기사)

사진: 김지원, 배성은, 이경남, 최서윤, 장유진,
류병건, 이선민 조교님, 김현진 조교님

2023 학생회

모두 감사드립니다!